

하늘 사랑

May 2020
vol. 467

5

cover story

우유니 복향

2019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황재순



하늘 사랑

vol. 467

5

May 202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0년 5월 5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이은정
편집기획 오철규 남궁지연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cover story 우유니 북항

전남 목포시 북항에도 우유니사막이 있었네요! 북항에서 우유니를 발견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서울, 세분화된 특보구역으로
효율적인 방재대응 앞장선다

04

기상과 우주의 놀라운 만남,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Weather Talk

- 08 날씨는 사건이다
- 10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그리고 공존의 지혜
- 12 날씨 기사 신나게 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 14 서점과 날씨

Theme Story

- 16 기상기후 빅데이터 그 속에 녹아들다
- 18 5월, 대구의 폭염을 말하다
- 20 따뜻한 봄날, 바람 맞다!
- 22 슬기로운 선원 생활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6 오늘, 당신의 날씨
- 28 Platform



서울, 세분화된 특보구역으로 효율적인 방재대응 앞장선다

예보국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긴급 정보이다. 기상특보는 행정구역 단위로 발표되며, 각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기상청은 1964년 특보 기준을 명문화한 이후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특보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보구역 세분화의 필요성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상 기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 보고서>(2018, 2019)에 따르면,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최고기온(41℃)이 나타났고, 같은 날 많은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이 경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 총 누적강수량이 0mm로, 전국에서 가장 메말랐던 달로 기록되는가 하면, 10월에는 영동 및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일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9년 장마기간 동안 강수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적었지만, 제주도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10월 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영동 및 남부지역 중심으로 많은 강수가 기록되었다. 이처럼 호우나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다양한 패턴을 보이며,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의 지역별 편차도 커지면서 기상특보 발표구역을 행정단위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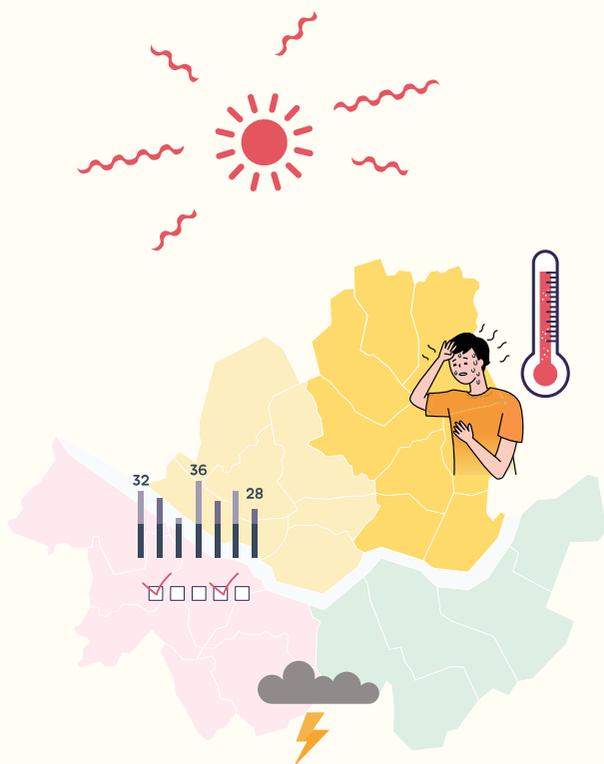


그림 1. 2018. 6. 30. 21시, 3시간 누적강수량 분포도

기상현상은 조밀한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18년 6월 30일 17시, 서울지역 전체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한 사례를 보면, 21시에 기록된 3시간(18~21시) 누적강수량 기준으로 서울의 북쪽인 노원지점은 73.5mm가 내려 호우주의보 기준에는 도달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0~5mm 내외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실제로 행정구역 내 기상특성이 달라 특보구역을 나누어 운영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평지와 산지의 기상특성이 상이하여 구역을 나누어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양의 경우에도 기상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해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별도 특보구역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보기술의 발전과 도전적 과제

특보구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의 세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동네예보의 정확도 개선, 초단기 강수 예측시스템 개발 등 끊임없는 예보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으로 보다 상세한 지역 내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예측해 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행정력이 집중되어있으며, 사회·경제적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의 특보구역 세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된 ‘서울지역 특보구역 세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지역의 밀집된 기상관측망을 바탕으로 지역적·기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보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기상 빈도를 활용하여 폭염, 한파, 호우로 구분해 분석하였고, 세분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공간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강수 패턴은 동서 방향으로 구분되고, 폭염 패턴은 남북 방향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기상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서울을 4개 구역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그림 2]와 같이 마련하였다. 이번 서울지역 특보세분화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기대효과

호우, 폭염, 태풍 등의 기상재해는 자연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작게는 이동의 불편에서부터 크게는 인명과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입히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보구역 세분화는 방재기상 측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인구 비율도 높을 것이다. 지역·기후·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를 통해 적시 적소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효율적 방재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발표구역	표현	예시
4개	서울	서울
3개	서울(제외권역)	서울(동남권 제외)
1~2개	서울(해당권역)	서울(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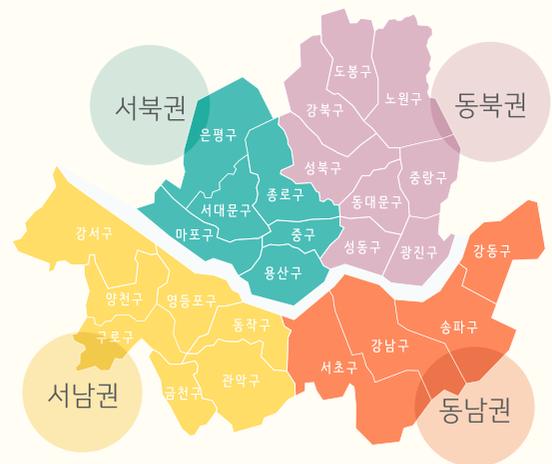


그림 2. 세분화된 서울지역 특보구역

기상과 우주의 놀라운 만남,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부산지방기상청

국내 최초로 기상예보관 전문직업 체험교육을 시도하는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외계인 테마형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여러분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곧 여러분과 만날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이하 우주천문대)를 소개한다.



(좌)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우)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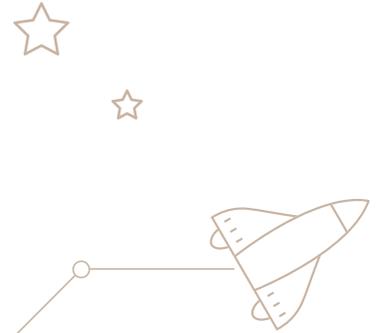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시작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 건립은 경상남도에서 과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직업체험관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6년 기상청과 밀양시가 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17년 11월, 기상청과 밀양시의 공동 착공식이 열렸으며, 과학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를 동시에 건립하게 되었다.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건물 건축 및 전시물 구축이 이루어졌다. 건축물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형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가 마주 보고 있어 마치 우주의 별을 두 기관이 품고 있는 것 같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직원들



남다른 팀워크, 밀양시와의 협업

기상과학관은 부산지방기상청이, 우주천문대는 밀양시가 각각 운영한다.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과학지식과 재미를 전달하고자, 두 기관은 2019년 12월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의 개관 및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관식과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통합관람권, 홍보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두 기관의 통합관람 수요를 예상하여 통합관람권을 마련하고, 우주천문대의 편의동과 주차타워 시설을 기상과학관 관람객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기상예보관 직업체험관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은 기상예보관 전문직업 체험관을 마련한 국내에서 유일한 과학관이다. 이외에도 기상현상, 위험기상, 기후변화를 주제로 직접 체험을 하며 날씨 속 기상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1층 기상현상관은 ‘기상현상의 원리를 찾아라!’와 ‘위험기상의 비밀을 밝혀라!’라는 주제로 빛, 바람, 구름, 지진, 토네이도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8m 높이의 토네이도 모형을 도입하여 토네이도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는 기상청(본청, 서울)의 국가기상센터를 그대로 재현한 ‘국가기상센터’가 있으며, ‘기상예보의 과정과 일기예보의 비밀을 밝혀라!’라는 주제로 실제 기상청의 예보과정을 수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관람객이 기상관측과 예보과정 이해를 통해 예보를 직접 생산하고, 통보문을 작성함은 물론, 국민에게 날씨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기상캐스터 체험관’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관’은 국내의 위험기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수영상관이 마련되었으며, 게임형 콘텐츠 ‘지구를 지켜라!’ 등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 삶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배울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언급한 3개의 상설전시관과 별도로 기획전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는 지진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진관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토네이도 모형



기상캐스터 직업체험



‘지구를 지켜라’ 게임형 체험



코리올리포스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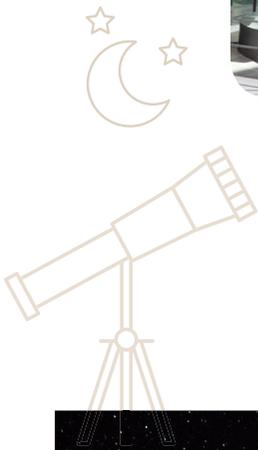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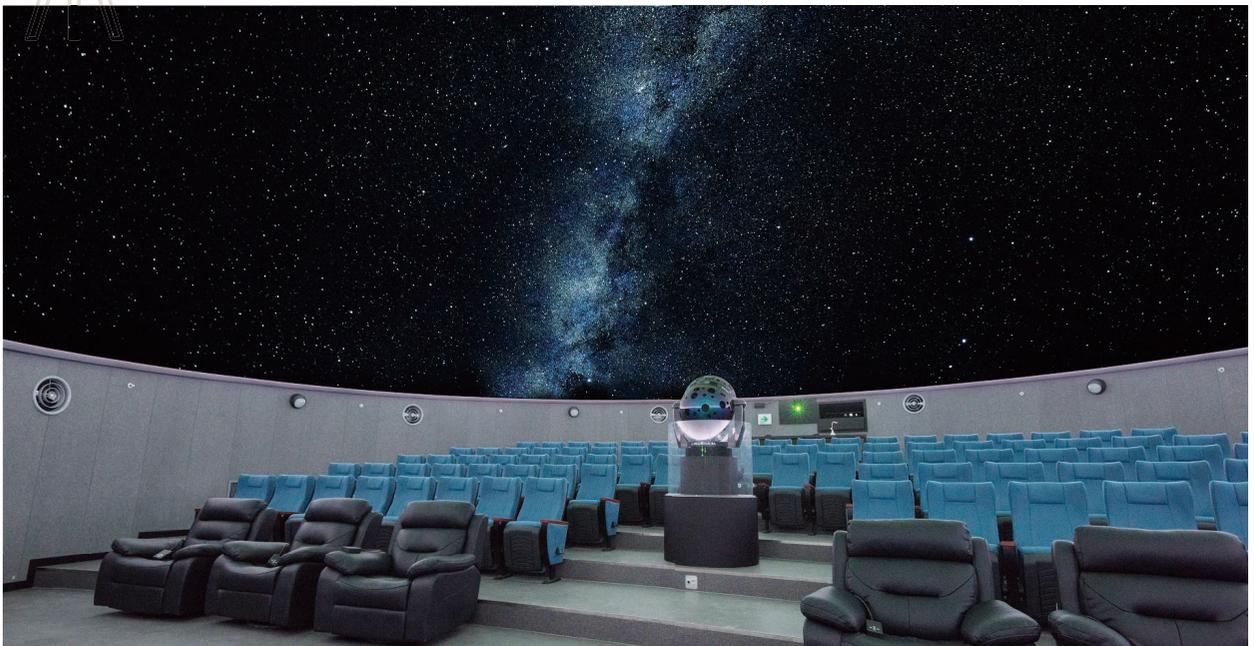
국내 최초의 외계생명 특화 천문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국내 최초로 외계행성과 외계생명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가진 천문대다. 천문대 1층에서는 600년 전 밀양에 찾아온 가상의 외계인 흔적 발견을 시작으로, 관람객이 특화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케플러-62 외계행성계 공전모형, 거대마젤란망원경 등을 전시한다. 2층에는 다양한 전시물과 더불어 외계인과 친구가 되고자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떠나는 체험시설과 천체투영관이 있다. 특히 천체투영관 ‘상상’은 99석(장애인 2석, 특석 5석 포함) 규모로 관람객과 해설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청중응답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설계되었다. 4층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천체관측장비가 있으며, 특히 70cm 크기의 주망원경 ‘별이’는 세계 최초로 음성제어가 가능한 망원경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상과학관을 향해

기상과학과 우주천문을 배우는 교육의 장을 넘어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항상 고민하고 있다. 기상과학관이 위치한 밀양아리랑대공원에는 우주천문대뿐만 아니라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아리랑아트센터가 있어 교육과 체험, 관광의 핵심시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기상과학관은 차별화된 문화행사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개관을 시작으로 찾아오는 모든 분이 다시 찾고 싶은 곳, 찾아올 때마다 새로움과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기상과학관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 기상과학관의 롤모델로 미래 기상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상예보관 전문직업 체험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천체투영관 ‘상상’





날씨는 사건이다

황 다은 드라마작가

마감으로 자발적 격리 상태가 길어질 때면, 마감 직후 하고 싶은 일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놓는다. 돌아올 시간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느리게 산책하기, 혼자 아껴두고 있던 홍차 카페로 지인을 불러내어 맘껏 수다 떨기, 단골 독립 서점에 들어가서 책 표지만 보고 내용 상상하기 등등. 막상 마감을 넘기고 나면 시들해질 법한 소소한 일들이지만 마감 중일 때는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 이 모든 희망사항들을 위한 대전제는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책하기 좋고, 수다 떨기 좋고, 책 읽기에 좋은 날씨. 마감만 아니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에 딱 좋은, 바로 오늘 같은 날씨!



유난히 햇빛과 바람이 좋은 날은 창밖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샘이 나고 애가 탄다. 나만 두고 모두들 이 좋은 날을 만끽하고 있을 것 같아 서운하고 서글프다. 글 쓰는 공간에 창문은 필수지만 창문을 등지고 책상을 배치하는 이유이다. 마감을 앞둔 작가에게 창밖의 날씨는 가장 강렬한 유혹이고 방해물이며 동력이다. 작업실에 붙박이 된 채로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는 주인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작가의 하루'라는 스토리에서 '날씨'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이론에서 '사건'은 주인공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뒤흔들어 놓는 일이다. '사건'에 직면한 주인공은 '이전과 같은 선택'과 '이전과 다른 선택' 사이에서 '갈등'한다. 창밖으로 기막힌 날씨를 마주한 뒤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노트북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눈이 자꾸만 창문 쪽으로 돌아간다. 마감이 끝나기까지는 직립보행 기능을 끄고 접이식 받침대 기능만 켜둔 두 다리가 자꾸만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 딱 한 시간만 나갔다 올까? 차 한 잔만 마실까? 책 한 권만 읽을까? '주인공'인 작가는 날씨라는 '사건'을 만나 마감을 앞두고 '갈등'한다.



사건 사고가 빈번한 현대인에게 날씨는 '오늘의 날씨'일 뿐, 사건이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부동의 형벌'을 받은 우리에게 날씨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활동이 줄 것이라 기대했고, 날이 따뜻해지자 마스크를 오래 쓰는 일이 힘들어졌고, 몰려오는 상춘객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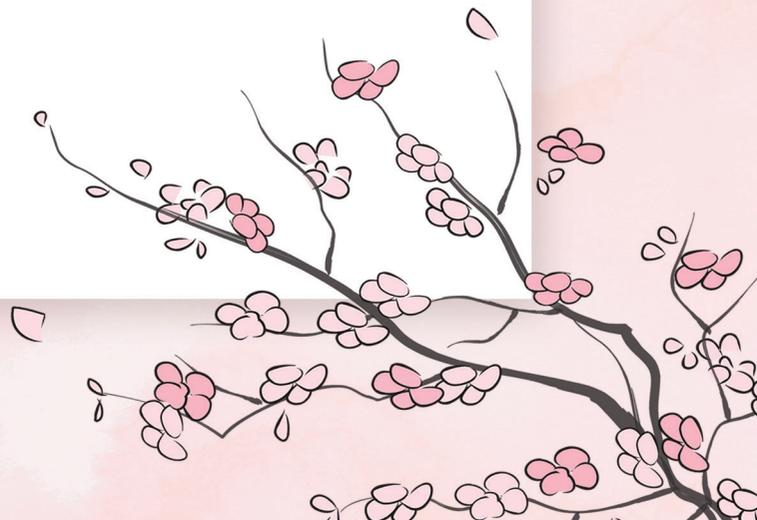


차단하기 위해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 당연한 것으로 누려온 소소한 일상의 가치를 체감했고, 일상의 배경이었던 ‘오늘의 날씨’를 찬찬히 응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춘 길에 오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오늘의 날씨’는 그저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문을 열고 나가 출근하고 산책하고 장을 보는, 지극히 평범한 일과가 우리 삶의 전부라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라는 카프카의 전언이 그야말로 맞았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난 주인공은 갈등을 겪고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 모든 여정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그곳은 이전과 같은 자리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은 인류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밝히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이미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오늘의 날씨’는 더이상 소소하게 ‘오늘의 날씨’가 아닐 수 있다. ‘날씨’라는 사건이 보통의 드라마에서 재난 영화로 장르를 바꿀 수 있다. 거대한 사건 앞에서 작은 사건들은 일상의 기미로 나타난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지혜가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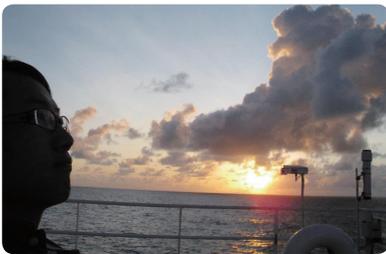


창밖으로 보이는 오늘의 날씨는 여전히 좋다. 아직 마감 여정을 완수하지 못한 작가는 ‘날씨의 유혹’에 저항하며 작업실 문을 굳게 닫아두기로 선택한다. 반작용으로 냉장고 문만 열고 닫기를 반복한다. 덕분에 마감 직후 내 몸은 틀림없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다. 동시에 다이어트라는 또 다른 사건을 예고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그리고 공존의 지혜

남 성 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따라 강의와 회의, 심지어 개인 면담까지도 모두 화상으로 하던 중 <하늘사랑> 기고 요청을 받게 되자 좀 고민이 되었다. 하늘보다는 주로 바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내게 <바다사랑>도 아닌 <하늘사랑>의 기고 요청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 땅 위의 하늘은 저 멀리 바다 위의 하늘과 연결된 드넓은 것이며,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사실 하늘의 2/3 이상이 바다 위에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도 공급하고 있으니 <바다사랑>과 <하늘사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증가한 열의 93% 이상이 흡수되었다는 바다를 빼고는 기후변화를 제대로 논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늘은 바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 왔고, 부지불식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과 다른 바다, 예전과 다른 하늘을 만들어낸 우리가 이제는 그로부터 생존을 고민하며 다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생존, 아니 나 혼자만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에, 모두가 다 같이 생존하기 위한 공존의 노력이 날로 절실해 지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망자를 기록하며 인류를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빠뜨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가까스로 진정된 후에도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바이러스 쇼크'가 찾아올지 모르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변화된 지구에서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는 일은 여전히 절실한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심각하게 변해가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악화 일로에 놓인 지구환경의 위기를 진단하며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연환경 파괴와 서식지 변화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적응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의 봉인이 속속 해제되고 있는 오늘날, 과연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까?

전례 없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소위 '인간의 시대(Age of Humanity)'를 살아가는 오늘날, 무분별한 자원 소비로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며 지구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다가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와 '지구 생태 용량 초과 날(Earth Overshoot Day)'이 전망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까운 시기에 인류의 멸종을 피하기가 어려움을 많은 과학자가 경고해 왔다. 더구나 전례 없는 기후변화를 마주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기 쉬운 지구환경으로 악화일로에 있지만,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없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자연재해가 등장하는가 하면,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은 이제 이변도 아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태평양과 같은 대양의 거대 쓰레기나 미세 플라스틱, 미세 먼지와 같은 지구환경 오염 문제는 우리 삶을 점점 더 옥죄어오는 등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경고에도 그동안 눈감아왔던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부메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 쇼크'를 겪고, 얼마나 더 많은 기상 이변을 겪어야만 행동에 나설 것인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인류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늘따라 하늘과 바다는 봄을 알리며 유난히 맑고 푸르다. 마치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지구의 위기에도 희망은 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외롭고 삭막한 '각자도생'을 선택할 것인가,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것인가.



날씨 기사 신나게 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김수현 연합뉴스 기자

‘왜 이렇게 창밖이 조용하지?’

3월 19일 아침. 보통 때면 침대에서 힘겹게 휴대폰 알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날은 기상청이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분다고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전날 오전 저도 잔뜩 힘을 줘서 기사를 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설치한 선별진료소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이 요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잠 잠했습니다. ‘오버한 기사가 됐나…… 낭패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잔잔한 것 같던 바람이 출근길, 점심시간을 지나며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보라매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 산책 나온 시민들의 옷가지가 정신없이 부대끼고 “오늘 바람 너무 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웬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제 처지를 한 기상청 직원에게 말하니 “이제 날씨 얘기가 단순하게 안 들리죠?”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군요.

네, 저는 기상청 출입 이제 막 반년이 된 기자입니다. 제 평생 날씨예보를 매일매일도 모자라 하루에 몇 번씩 자세히 보기도 처음입니다. 날씨 기사는 반응이 즉각 오는 편이어서 흥미롭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자연재해, 이상 기상과 관련한 기사는 포털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생활과 밀착한 기사라는 뜻일 겁니다. 그간 지인들에게 날씨로 하던 안부 인사를 좀 더 성의껏 할 수 있다는 점도 소소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슬프게도 요즘은 기상청 출입 기자로서 장점이 장점처럼 와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서울 벚꽃이 개화했다는 기사를 썼는데, 좌절과 분노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해서 꽃이 피도 보려 갈 수가 없네.’, ‘이런 뉴스 반갑지 않다.’, ‘꽃구경도 못 가는데 꼭 이런 기사를 써야 했느냐.’ 등등. 저도 깊이 공감하는 터라 마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날씨 타령만 할 수 있는 때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금쯤 봄노래 흥얼거리면서 한창 나들이할 때니까요.





“날이 찌뿌듯하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쌀쌀하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 그간 제가 해본 날씨 타령을 떠올려봅니다. 코로나19에 일상을 빼앗기고 나서야, 자연재해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날씨 불평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이 글이 실릴 때쯤이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져서 날씨 기사를 신이 나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지방에서 일하다 오후에 서울로 출장 온 남편을 만났습니다. 날이 많은데 거추장스럽게 장우산을 들고 있네요. “사무실 나올 때 흐려서 우산을 갖고 나왔는데, 서울 출장 와보니 날씨가 너무 좋다!” 하며 씩 웃습니다. 제가 예보 기사에 오전 중에 전국적으로 비가 그친다고 분명히 썼는데……. 기사를 안 본 정황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기상청 출입 기자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단도리해둬야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기사 안 본 대가에 대해 똑똑히 응징할 참입니다.



서점과 날씨

유 희 경 시인



유희경 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데뷔했으며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다. 현재 혜화동 로터리에서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서점에는 커다란 창이 여덟 개나 있고 그중 넷은 로터리 방향으로 나 있다. 덕분에 가로막는 것 없이 사시사철 날씨와 함께 지내는 기분이다. 오늘은 아침별이 좋았고 어제는 구름이 많았으며, 며칠 안으로 한바탕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등등의 날씨에 대한 회상과 바람을 가져보는 것이 출근 첫 일과인 것은 꽤 낭만적이다. 그럴 뿐 아니라 꽤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 것이 그에 맞춰 화분과 꽃병의 자리를 달리하고 창문을 열거나 닫고, 조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소한 챙김 하나하나가 침묵에 빠져 있는 공간을 어떤 생기로 채우곤 한다고 나는 믿는다.

한편, 날씨는 서점의 그날 매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날그날의 일기(日氣)를 챙겨보는 습관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 생겼다. 그전에는 현관문을 나서며 느낄 수 있는 놀람의 즐거움을 위해 부러 피하기도 했다. 문을 열어보니 봄이 되어 있고 여름이 되어 있고 가을이 되어버리고, 비나 눈이 오고 더없이 화창한 날이 되어 있을 때, 감탄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불가능성과 무력함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그런 만감이 더는 내 것이 아니구나 싶어 문득 슬퍼진다.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이런 슬픔도 있다.

당신은 어떤 날씨에 서점을 찾는가. 온라인 서점이 보편화 된 지금에도 일년에 한두 번 이상은 서점에 가게 되는 것이 일반이니 한 번 되짚어보자. 아, 서점에나 가볼까. 싶어질 때에, 당신의 창문은 어떤 날씨를 품고 있는가. 신기하게도 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에 그에 대한 통계가 남아 있다. 어째서 이런 통계가 POS 시스템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고마운 일이다. 나는 이 자료를 자주 들여다보며 강연을 갈 때마다 나누곤 하는데, 그 결과치가 늘 신기하며 한결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수치를 보지 않아도 체감하는 바가 있으니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릴 때, 서점에는, 사람이 든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흔들리다가 흘러내리게 한다. 그것들이 가만히 고이게 만든다. 그 모양은 책을 읽는 사람들과 닮아 있다. 고요 속에서 책을 읽어갈 때,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에 의해 촉촉해지고 이내 흥건해지곤 한다. 우산 속에 혼자 남아 젖어가고 젖어버린 어디쯤에서 부 영계 불을 밝히고 있는 서점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은 그런 까닭 이라고 짐작한다. 그래서 나는, 비가 오면, 독자를 맞이할 채비를 단단히 한다. 음악의 볼륨을 줄여 빗소리를 들이고 조명의 온도를 낮추고 마른 수 건을 하나쯤 챙겨두는 것은 비가 오는 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고 그러하니까.



그런 날 서점이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의 마음에 돌아난 우울감은 나쁜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 알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나는 나의 서점이 독자라는 빗방울들이 곁 여 함께 있는 맑은 웅덩이가 되었으면 한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흔들리다가 흘러내리게 한다.
그것들이 가만히 고이게 만든다.”

사실 비가 오는 날만이 서점 찾기 좋은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 구름이 많은 날은 어떤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형상 하나를 내 어딘가에 띄어놓고 싶 게 되지 않은가. 햇살이 가득한 날이나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지는 때는 어떤가. 심지어 무심해 그날의 날씨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때에도 서점은 당신을 위한 장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침,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통계에 따르면 독자가 적을 빛과 온도. 그러나, 그러면 좀 어때. 해가 누엿해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별과 놀아볼 생각이다. 이럴 때에 서점은 정말 예쁘다. 그러니 어딘가 달고 싶다면, 어 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서점에 찾아와주길.



기상기후 빅데이터 그 속에 녹아들다

전 주 성 기상서비스진흥국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항상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결과는 값질 것이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교육부터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까지 기상·기후 빅데이터 속에 녹아든 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작이 반이다

나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자동차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지고 이용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마침 대구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진 대학교 4년, 회사생활 2년을 과감히 버리고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19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참가

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실 비전공자인 나에게 빅데이터 분석은 관심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학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조차 이해가 쉬울 만큼 탄탄하게 기초 교육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4인 기준 1인의 멘토가 참여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배워 나갈 수 있었다.

물론, 6개월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은 완벽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배우고 익힌 교육들을 바탕으로 교육생들끼리 팀을 형성하여 공부하고 멘토 피드백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는 과정은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로의 기초를 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궁금했다. 과연 내가 배운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활용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2019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에 도전하게 되었다.



야구와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융합

2019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는 날씨와 다양한 산업을 융합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내가 좋아하는 야구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융합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에게 인기 스포츠인 야구에 대해 관심을 끌기도 좋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인 ‘날씨마루’ 사이트를 활용하여 선수별로 날씨 영향에 따른 성적을 분석할 수 있었다. 우리는 특히 차후에 등판할 투수들의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했고, 그 결과 자유 분야 10개 팀에 선정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상데이터

콘테스트를 참가해 보니, 국민 누구에게나 방대한 기상데이터가 열려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터분석 방법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정보는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날씨마루’ 분석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분석 방법을 모른다면 ‘날씨마루’ 분석플랫폼 사이트를 통하여 분석교육 실습과 동영상 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 역시 ‘날씨마루’ 분석플랫폼을 사용하여 입선하였듯이 본인이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두려워 말고 빅데이터 콘테스트에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이 글을 쓰며 바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상데이터를 사용하고 ‘날씨마루’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분석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날씨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나처럼 기상기후데이터 속에 녹아들기를 희망해본다.

5월, 대구의 폭염을 말하다

김수인 대구지방기상청

37.4°C SATURDAY 31
May, 2014 17:01



숨 막히는 5월의 대구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다. 분명히 날짜로는 봄인데, 역시 대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5월의 막바지이긴 하지만 이 더위는 정말이지 말이 안 된다. 뜨거운 햇살에 불쾌지수까지 높았다. ‘대체 기온이 몇 도인가?’ 기상청 홈페이지로 확인해보니 37°C를 훌쩍 넘어섰다. 5월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온이었다. 햇살도 한여름만큼 강했고 불쾌지수도 75(높음)를 넘어섰다. 자외선지수는 ‘위험’이었고, 오존주의보까지 발표되어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야외 활동이 힘든 날이었다.

폭염의 도시 대프리카

다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대구는 더위로 유명하기에 더위의 상징인 아프리카와의 합성어로 일명 ‘대프리카’라고도 불린다. 특히, 1942년 8월 1일에는 대구 낮 최고기온이 40°C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 놀라운 기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더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이 무려 41°C를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폭염의 상징적인 자리를 강원도에 내어주었다. 그러나 기온뿐만 아니라 여름의 기간, 열대야 등의 많은 더위 관련 요소를 고려했을 때 대구와 그 주변 지역인 영천, 의성 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5월의 이른 더위

그렇다면 여름이 아닌 5월의 대구 기온은 어떨까? 대구의 5월은 봄이라고 하기는 너무 덥고 그렇다고 여름이라고 하기는 낱자 상으로 이르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대구의 5월 기온은 2014년 5월 31일에 기록한 37.4℃였으며, 2017년 35.9℃(5월 29일)와 2019년 34.5℃(5월 24일)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대구와 인연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 5월은 이미 여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폭염을 즐기는 도시, 대구

그렇다면 이렇게 여름이 길고 더운 대구는 폭염에 의한 피해도 클까? 작년 기준 온열질환자 발생 수를 보면 대구는 228명으로, 서울·경기 517명, 광주·전남 241명, 부산·경남 335명과 비교하면 발생률이 낮은 편이다. 이를 두고 대구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대구 사람’은 더위에 강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대구지방기상청에서 대구광역시의 폭염 정책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 느낀 점은 대구광역시의 폭염관련 대응 대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미 타 지역의 지자체는 대구광역시의 선제적인 폭염 대책을 모델로 삼아 폭염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부분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대구는 폭염을 이기는 것을 뛰어넘어 폭염을 즐기는 도시’라고. 이미 대구는 폭염을 마케팅 주제로 삼아 치맥페스티벌, 국제쿨산업전 등 많은 폭염관련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폭염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대구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 지독한 폭염의 도시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꽃피는 5월, 대구는 이미 여름이 시작된다. 폭염을 이미 즐기는 도시 대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어렵지만,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된다면 더위를 즐기는 방법으로 대구 여행을 적극 추천해 본다. “대구로 어여 오이소~”



2019 대구치맥페스티벌 (출처: 대구관광안내 홈페이지)

따뜻한 봄날, 바람 맞다!

박 유 정 강원지방기상청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는 큰불이 났다. 고성부터 동해까지, 작은 불씨 하나가 강풍을 타고 동해안을 훑고 지나갔다. 전국에서 소방차가 투입되어 신속하게 진화를 마쳤지만, 어마어마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동해안 지역에 쓰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올해도 동해안 지역에 산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봄철 무서운 바람, 양강지풍

‘양강지풍’이란 봄철 양양에서 강릉 사이에 부는 바람으로, 비슷하게는 ‘양간지풍’도 있다. 이는 양양에서 간성 사이의 바람을 뜻하고 지명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강원도영동은 겨울철에 동쪽 해상에서 동풍이 불때 대설 등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에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동풍과 봄철 양강지풍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측 공백지역을 중심으로 입체관측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2020 강원영동 공동 입체기상관측 프로젝트’다. 강원지방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공동으로 동풍과 양강지풍 이벤트 발생 시 관측 공백지역에 대한 특별관측을 하는 것이다.

인제관측소에서

3월 20일, 여느 때와 다른 없는 화창한 금요일이었다. 갑자기 예보현업실이 분주해졌고, 알고 보니 오늘과 내일 사이 강원도영동에 양강지풍 패턴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 제3차 양강지풍 특별관측을 결정하였다. 당장 오늘 15시의 바람을 관측하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양강지풍 특별관측소는 (구)인제관측소로, 현재 근무하는 강릉과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출발하였다.



인제는 벌써부터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서둘러 고층관측을 준비해야 했다. 양강지풍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의 대기상태 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라디오존데라는 기상관측 기구를 하늘로 띄워야 한다. 라디오존데에는 커다란 헬륨가스가 든 풍선을 매달아 하늘로 띄우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상부터 30km 이상 상공까지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풍속을 관측할 수 있다.

정신없이 라디오존데를 설치하고, 밖으로 나와 헬륨가스를 넣고 있는데 바람에 따라 커다란 풍선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내 몸이 가벼웠다면 이 풍선을 잡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겨우 풍선에 가스를 넣고 끈으로 끝을 묶은 뒤 손을 놓았다. 바람이 세서 그런지 손에서 떠난 풍선이 평소보다 하늘로 올라가는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 같았다. 풍선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터지면 다시 비양을 해야 하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올라가길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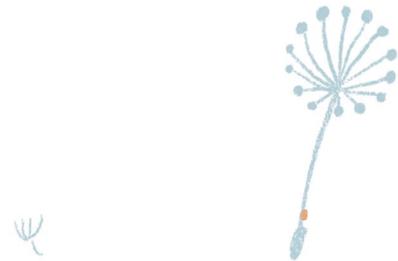
예상일기도를 보니, 지금보다 내일 새벽에 바람이 더 강할 것 같았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존데 띄우기가 힘들겠다는 계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 속에 잠시나마 잠을 청했다. 새벽 3시 관측시간이 되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존데를 띄울 준비를 시작했다. 너무 바람이 강하게 불면 풍선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수 있으니, 우리는 잠깐이라도 바람이 약해진 틈을 노리기로 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풍선을 꼭 붙잡고 있다가 “지금이에요!” 말하는 순간 바로 풍선을 놓았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풍선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마지막 오전 9시 관측은 바람이 찾아들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양강지풍 관측을 마치며

관측과로 발령받기 전에는 고층관측에 대해 들어만 봤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띄워 올린 라디오존데가 단열선도를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상자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뿌듯했다. 특히, 관측자료가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특별관측을 하니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았다. 따뜻한 봄날,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띄워 올린 자료가 훗날 강원도 양강지풍 분석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신없이 라디오존데를 설치하고,
밖으로 나와 헬륨가스를 넣고 있는데
바람에 따라 커다란 풍선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내 몸이 가벼웠다면 이 풍선을 잡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슬기로운 선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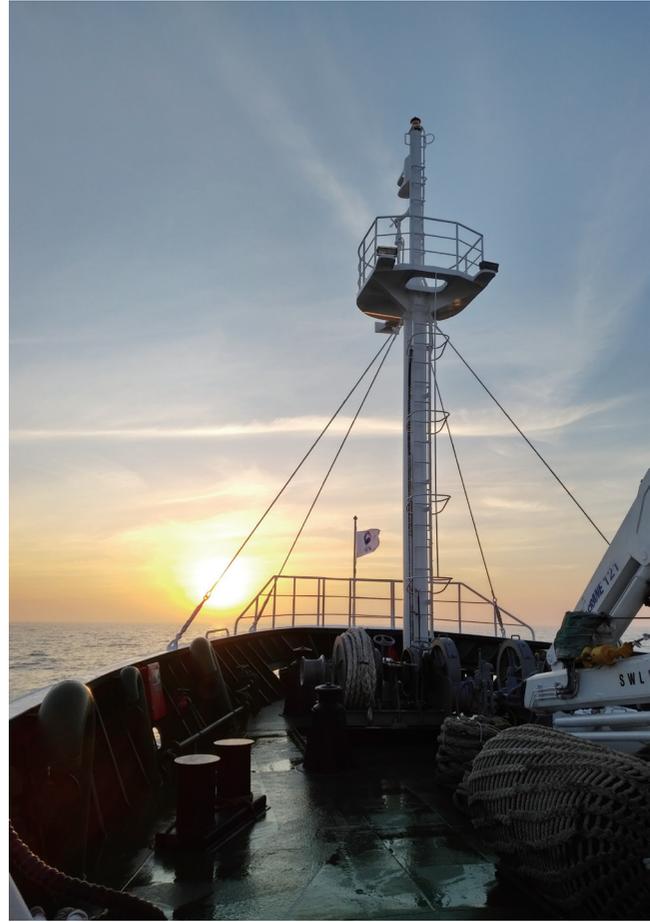
최 범 규 제주지방기상청

해양과학을 전공했지만, 배를 타본 적은 없었다. 동기 2명이 기상1호로 먼저 발령받을 때 ‘이제 나는 안타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 내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상1호에 승선하며 펼쳐졌다. 국내 최초 기상관측선, 기상1호의 선원으로 슬기롭게 생활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멀미, 극복할 수 없는 것

평소 차만 타도 멀미를 하는 내게, 기상1호를 타게 됐다는 소식은 아찔했다. 역시나 첫 항차부터 멀미는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식사시간만 되면 배 전체에 요리 냄새가 퍼지는데 그날의 저녁 메뉴는 보쌈이었다. 험난했던 첫날의 멀미 때문인지 그 날 이후로 보쌈을 먹은 적이 없다. 결국, 마지막 항차까지 멀미를 극복하진 못했다. 그저 약을 먹고, 무덤덤해졌을 뿐이다. 멀미를 할 때면 다시는 배를 안 타겠다고 수 없이 다짐하며 잠들었지만, 날씨가 좋아져 멀미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맛있게 밥을 먹고 근무하는 나를 발견한다.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다.



진짜 맛집, 기상1호

좁은 선박에서 생활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허기가 금방 진다. 그래서 식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식사시간이 되면 기상1호는 유명 선상 레스토랑으로 변한다. 선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데 음식을 좋아하는 내게는 쉬는 시간에 주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힐링타임이었다. 기상청 직원들이라 그런지 날씨에 알맞은 음식들이 계절별로 나온다. 추운 겨울날엔 몸을 녹여주는 국밥 종류로 온기를 채워주며, 더운 여름에는 냉국, 냉면, 콩국수 등으로 더위를 날려준다. 마라도를 지날 땐 짜장면이 나오고 특식으로는 목살 스테이크나 밀피유나베 등이 나올 때도 있다. 제한된 식자재로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직원들 때문에 기상1호 생활은 너무 행복했었다.



위험기상의 최전선

힘들고 외로운 기상1호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최전선에서 관측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18명의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1년 평균 160일 정도를 바다 위에서 근무했다. 봄에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황사나 미세먼지의 길목인 서해를 무대 삼아 바다는 기상1호가, 하늘은 기상항공기가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현장에 있었다. 또한,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접근하면 피항을 가는 다른 배들과 달리 기상1호는 태풍을 향해 출항했다. 태풍의 예상진로에 표류부이를 투하하고, 태풍이 지날 때 바다날씨를 관측하여 태풍 예보를 지원했다. 지난겨울에는 강원영동 지역의 대설을 유발하는 동풍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2020 강원영동공동 입체기상관측'에 참가하여 동풍이 불어오는 쪽의 해상날씨와 대기상층을 관측했다. 이 밖에도 해양 기후자료 확보를 위한 해수 염분·수온 정기관측과 Argo 플로트 투하, 동해 해저지진계 설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추억으로 남은 기상1호 생활

야간 운항 중 우연히 봤던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 매번 볼 때마다 황홀했던 수평선 위의 일출과 일몰, 운이 좋게 만났던 돌고래 무리, 온 세상에 하늘과 기상1호만 있던 바다. 이런 멋진 풍경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또 가족보다 더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며 정들었던 선원들과의 이별도 아쉽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상1호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다시 지상근무지로 돌아왔다. 기상1호에서의 경험들은 앞으로의 기상청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서해 해상에서 근무 중인 기상1호 선원들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세종특별자치시 자동기상관측소 정식 운영(4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자동기상관측소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관측소로서, 정책 결정과 여러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1호, 기상관측 임무 종료(4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 임무를 4월 1일 08시 59분에 종료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상청도 함께합니다!(4월 7일)



기상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청사 내 열 감시 카메라 설치,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봄철 산불 대비 양간지풍 특별관측 현장점검(4월 9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봄철 대형산불 원인의 하나인 양간지풍을 철저히 관측하기 위해 인제군 자동기상관측소를 현장 점검했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4월 16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대구지방기상청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용 마스크 100개를 추가 전달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상레이더 테스트베드 현장점검(4월 23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레이더 테스트베드를 방문하여, 범부처 레이더 협업 성과와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제주지방기상청-국립제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4월 21일)



제주지방기상청은 국립제주박물관과 상호협력하여 <태풍고백 颱風告白> 특별전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개최(4월 23일)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날씨를 담은 '제37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를 서울역에서 7일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며 진행했다.



📷 **임명진**
 작년 식목일에 심은 매화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 나오더니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 **안희진**
 걸어서 퇴근하고 싶은 화창하고 시원한 계절이에요~

📷 **김찬술**
 저물어 가는 하늘, 누군가에게는 여행길,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퇴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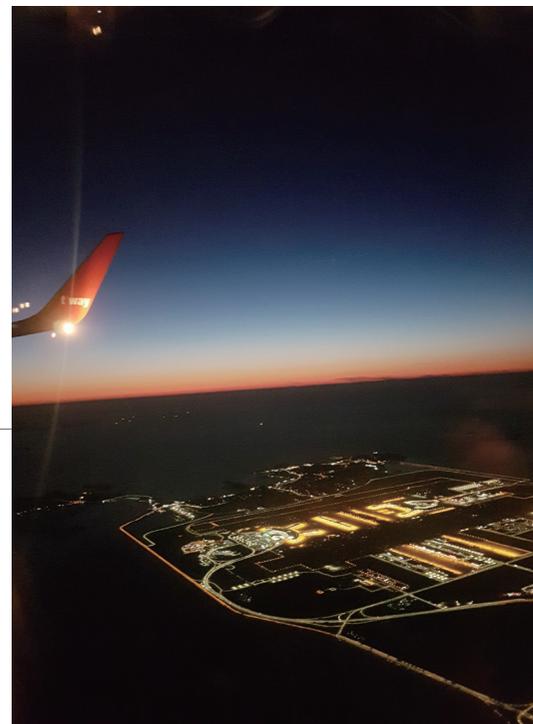
어둠,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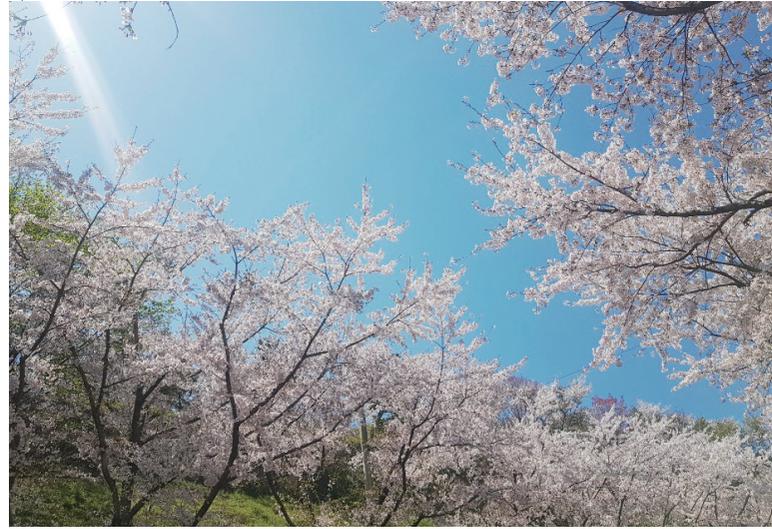


📷 이현정

벚꽃이 만개한 동네 산책로는 매년 나들이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는 데,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화창한 봄빛이 홀로 피고 지는 참으로 낯선 풍경입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은경

아쉽지만 올해 벚꽃은 집 근교 황령산에서 즐겼습니다. 염원하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핑크빛 장미처럼 환한 미소만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 김태완

어느새 나무 색깔이 푸르게 변하고 움도 터져 공원 전체가 온통 싱그럽고 푸르게 변해 산책하기에 좋네요.



📷 윤영미

마냥 걷고 싶은 봄 찾아 가는 길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봄옷 패션의 완성을 위해 준비하세요!

#봄날 #날씨 #봄옷 #출근룩 #패피 #TPO

봄옷 입기 전 꼭 보세요~

변덕이 심한 봄날, 출근이나 외출하기 전에 옷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으시죠?
날씨에 맞는 옷차림은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그럼, 날씨는 언제, 어떻게 확인 하면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날씨 정보 이용법을 소개하는 '날씨추에이션(날씨+시추에이션)'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날씨추에이션 1편 영상 보고 즐거운 날씨생활하세요!



웹진
kma.go.kr

<하늘사랑>의 모든 내용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의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사랑>을 PDF로 내려받고,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보기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 지식과 배움 > 간행물

sns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날씨를 매개체로 일상을 나누고, 다소 어려운 기상과학 부터 기상상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기상, 날씨와 연관된 트렌드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SNS 채널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maskylove>



유튜브
<https://youtube.com/KMA0365best>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a_131



트위터
https://twitter.com/kma_skylove

새 생명을 위한 자연의 선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와 아이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 지원대상: 임산부라면 누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

■ 지원내용: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80% 할인된 가격
으로 구매, 20%는 본인부담

ex) 5만원 구매시 1만원 본인부담

■ 제출서류: 신청서, 임신·출산증빙서류

※ 임신·출산증빙서류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말함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